

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-3460-7316 FAX 02 3460 7914

'글로벌 이슈 페이퍼'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,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

이슈 요약

이란 핵협상 현황 및 진출 유망분야

- 이란과 P5+1, '15.4.2일 스위스 로잔에서 핵개발 및 對이란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최종안을 6.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
 - 동 협상에서 도출된 정치적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최종 합의 기한인 6.30일까지 지속 예정
 - 단, 이란의 핵시설 사찰, 제재해제 시점 및 조건에 대한 P5+1와 이란간 확연한 입장차, 對이란 제재강화를 주장하는 美공화당 영향력 지속 등 이란 핵협상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최종 핵협상 타결시까지 예의주시 필요
- 현행과 같이 우리기업은 '15.6.30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활용하여 제재 유예 및 비제재 분야에 한해 對이란 원화 거래 지속 가능
- 제재 해제시, 이란 경제상황 개선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구기업의 진출확대로 경쟁 심화예상
- 이에 보건·의료, 신재생 에너지, ICT 등 제재완화 이후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선점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, 지속적인 이란 핵협상 정보 모니터링과 함께 KOTRA 마케팅 사업 참가 등을 통한 이란시장 진출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함

1. 이란 핵협상 현황

□ 이란과 P5+1, '15.4.2일 스위스 로잔에서 핵개발 및 對이란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(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: JCPOA)의 최종안을 6.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

- * P5+1 : Permanent 5(UN 안보리 상임이사국 : 미국, 영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) +1(독일)
- * '13.11.24일 합의된 공동행동계획(Joint Plan of Action) 이후 2차례 협상 기한 연기('14.7.20일→'14.11.24일 →'15.6.30일)를 통해 이란 핵개발 제한 등 양측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

○ 동 협상에서 도출된 정치적 기본합의(political framework agreement)를 바탕으로 현재 실무협상 진행 중

□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JCPOA 최종 합의 기한인 6.30일까지 지속

○ 핵시설 사찰, 제재해제 시점 및 조건에 대한 P5+1와 이란간 확연한 입장차, 對 이란 제재강화를 주장하는 美공화당 영향력 지속 등 이란 핵협상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최종 핵협상 타결시까지 예의주시 필요

- * (이란) 최종 합의 즉시 경제제재 전면 해제 요구 (서방) 핵시설 검증 필수, 단계적 경제제재 입장
- * (美)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('15.5.7일) 가결을 통해 미의회는 30일간의 최종 합의안 검토기간 확보 및 경제제재 해제 거부권 행사 가능

2. 우리나라에의 영향

□ 현행과 같이 '15.6.30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활용하여 제재유예 및 비제재 분야에 한해 對이란 원화 거래 지속 가능

- * (제재유예분야) 자동차 부품, 석유화학, 귀금속 등, (비제재 분야)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및 소비재 (가전제품 등), (제재분야) 군수품 등
- * (참고) 한·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'15.5.1일(금)부터 對 이란 용역거래 범위를 현행 B2G에서 B2B로 확대·시행 중

□ 제재 해제시, 이란 경제상황 개선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, 서구기업의 진출확대로 경쟁 심화예상

○ 지속적인 이란 핵협상 정보 모니터링, KOTRA 마케팅 사업 참가 등을 통해 이란 시장 진출 방안 지속 모색 필요

3. 이란 시장 진출 전략

목 표

이란시장 선점

추진 전략

- ◆ 핵협상 진전 동향 및 현지시장 정보 모니터링
- ◆ 한-이란 전략적 파트너십 및 동반성장 모델 구축
- ◆ 이란시장 진출 유망분야 공략 강화

추진방향 및 세부사업

① 경제제재
완화 동향 및
현지시장
정보 모니터링

- 핵협상 과정 지속적인 모니터링
- 이란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· 상담회 참가
- 이란정부 정책 변화·경쟁국 기업동향 등 시장변화 정보수집 및 분석

② 전략적
파트너십
구축

- 기존 현지 기업과의 신뢰 관계 강화
- 신규 거래선 발굴 노력 지속
- 문화교류, CSR사업 추진 등으로 교류범위 확대

③ 진출 유망분야
공략 강화

- 이란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활동 강화
- 이란 유력 바이어 방한 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다양화
- 자금 확보된 민간 · 중소형 프로젝트 발굴
- 제재완화 이후 유망품목·분야 선점 기반 마련

4. 경제제재 해제시 진출 유망 10대 분야

번호	구 분	선정사유
1	철 강	• 국내업체 건설/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시 철강 제품 수요증가 기대 • 저가형 제품 위주였던 수입 수요가 고가 제품으로 확대 예상
2	석 유 화 학	• 경제성 높은 이란産 원유 수입 확대 → 석유제품 가격 유지기여 • 국제유가 하락 예상 →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가격 경쟁력에 호재
3	조 선 해 운	• 건설/석유화학 분야 수요확대 → 장기적 해운 수송량 증가 기대 • 제재 해제시 이란 LNG 운반선박 80척(160억달러 상당), 원유 수송선박 10척 (10억달러), F-LNG(2억달러) 등 발주할 것으로 관련업체 예상
4	건설 플랜트	• 대규모 석유화학/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• 향후 1,600억 달러 규모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계획 • 제재 본격화된 '09년 이후 우리기업 수주 실적 전무
5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	• 이란 핵협상 타결로 자동차 생산·조립용 부품 수출 재개 예상 • 이란의 수입규제, 자동차 관련기관 압력 등으로 완성차 수출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
6	보 건 의 료	• 이란정부, 의약품 부족 및 낙후 의료시설 개선 위해 의료산업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- 검사·진단장비 등 의료기기, 항암제 등 의약품 진출 유망

번호	구 분	선정사유
7	정보통신 기술(IT)	• 서방기업 이란시장 철수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IT장비/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- e-러닝시스템, 은행시스템, 전자교통시스템, 디지털 병원 등 진출 유망
8	신재생 에너지	• 이란정부, 신재생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 -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000MW로 확대 계획 - 풍력발전, 태양광발전, 바이오매스 등 진출 유망
9	중소형 플랜트	• 이란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 추진으로 자동화라인 등 생산 설비 수요 증가세 - 국내생산 촉진 정부방침으로 관세장벽(완제품 40~90%, 기계·부품 5~25%)이 더 높아지고 수입규제 강화 추세
10	화장품	• 이란 여성의 뷰티산업 및 제품에 지대한 관심으로 관련 수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• 청장년 인구증가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뷰티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제재해제 이후에도 해당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됨 - 안티에이징 및 프리미엄 제품 영역 확장 예상

별첨 1 이란 핵협상 상세 경과

□ P5+1/이란 간 핵협상 경과

- P5+1과 이란은 핵협상 타결시한을 '14.11.24(월)에서 '15.6.30(화)로 약 7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
 - '14.1.20(월)일부터 시행된 공동행동계획 (JPA: Joint Plan Of Action)*의 유효기간도 '14.7.20(일)에서 1차로 '14.11.24(월)까지로 연장된 이후 2차로 '15.6.30(화)로 재연장
- * 공동행동계획 (JPA: Joint Plan Of Action)
 - ① (이란) 핵개발활동 중단 노력, ② (P5+1) 특정분야 제재 중단 등 한시적 제재완화
- '15.4.2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(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: JCPOA)의 최종안을 6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6.30일한 기술적 세부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최종합의 도출 계획

<2002-2014 이란 핵협상 관련 주요 경과>

- '02.8월, 이란 반정부 단체, 중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
- '06.12월-'07.6월 UN, 4차에 걸쳐 이란제재 결의안 채택
- 미국, '10.7월 포괄적이란제재법, '12년~'13년 국방수권법 등 이란관련 제재 시행
 - * 포괄적 이란제재법(Comprehensive Iran Sanctions, Accountability, and Divestment Act)
: 대이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 시장 참여 제한
 - * 국방수권법(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)
: 제3국 금융기관이 '이란중앙은행' 등 이란 금융기관과 '상당한 거래'를 할 경우 제재
- '12.4월-'13.2월 P5+1, 이란 간 핵 협상 진행
- '13.8월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 후 P5+1/이란 간 핵협상 지속
 - * 제네바에서 1차('13.10.15-16), 2차('13.11.7-9), 3차('13.11.20-11.24) 핵협상 진행
 - * 6개월 간('14.1월까지) 핵 활동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향후 1년 안('14.7.20일)에 포괄적 핵협상 타결을 목표로 합의안 도출
- '13.12월-'14.1월 핵협상 이행방안을 위한 실무협의
 - * '14.1.20-7.20일간 자동차 부품, 석유화학 등 특정분야 한시적 대이란 제재완화
- '14년 포괄적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하여 6차례('14.2.18-20, 3.18-19, 4.8-9, 5.14-16, 6.16-20, 7.2-19) 후속협상 진행 및 6차 회담('14.7.19일)에서 핵협상 시한 '14.11.24일로 연장 후 '15.6.30일로 재연장

별첨 2 美-이란 관계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 배경

□ 美-이란 관계 주요 사건

- '79.1월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 양국 관계 악화 심화
 - 호메이니 혁명 전 이란의 팔레비 왕조와 미국은 소련 봉쇄전선 구축을 위한 우방 관계 형성
 - '79.2월 이슬람 혁명으로 반미성향 시아파 최고지도자 호메이니 집권
 - '79.11월 이란 시위대의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미국 내 강한 반이란 감정 발생, 양국간 외교관계 단절
 - '84.1월 미국,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
 - '80년대 중반 이후 이란의 핵 개발 본격 추진
 - '95년 미국 자국기업의 對이란 석유개발 투자, 특정품목 수출금지
 - '97년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의 對미 유화 제스처에도 '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“악의 축”으로 선포
 - '05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집권('05-'13, 제 9, 10대 대통령) 이후 對미 강경 정책기조 지속

□ 美-이란 정책 변화 배경

- 오랜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악화에 따른 이란 중산층의 변화요구 증대
 -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이란 석유수입 급감, 경제성장 둔화, 외환 보유고 감소, 물가 폭등 등 경제악화 지속
 - '13.6월 이란의 경제를 파탄낸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의 지지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
 - * 이란 신정부,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외교, 경제 실용주의 노선 정책 추구
 - '13.9월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핵협상 협의를 위한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
-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외교노선 변화
 - 중동지역의 현안을 무력긴장 대신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추구
 - 이라크 전쟁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여론 악화
 - '13.6월 오바마, 이란 로하니 대통령 당선 직후 이란의 유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란과의 핵협상에 나설 용의 표명
 - 시리아 내전, 이라크 사태 등 중동지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에 주목하며 이란을 對중동 외교정책의 주요 관련국으로 인정

별첨 3 최근 주요국별 대이란 진출 움직임

○ 프랑스

- (자동차) 이란 호드로社(Iran Khodro Company, 이란 최대 자동차 생산 국영회사) 회장 하شم 예케자레, 프랑스 푸조-시트로엥社와 면담시 제재 후 자동차 공동생산 방안 논의('15.4)
- (에너지) 토탈社 회장 패트릭 푸야네, 제재 해제와 동시에 이란 에너지 시장 재진입 예정 언급('15.4월)

○ 독일

- (무역) 주이란 독일대사 미카엘 바론, 이란 샤히드 라자이 항구 방문 후 해양·항만 분야 등을 포함한 양국간 무역 증대를 희망한다고 발언('15.4월)
- (에너지) 이란 석유부 장관 비잔 장게네, 독일 에너지부 장관과 베를린에서 면담하며 오일-가스 분야 투자 요청('15.5월)

○ 이탈리아

- (환경)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 지안 갈레티, 이란 환경부와 MOU 체결하는 등 양국간 환경 분야 협력 약속('15.4월)
- (에너지) Eni社, Technimont社의 설계관리 회사인 KT, APS 등도 제재완화대비 석유화학 분야 진출 검토 중('15.4월)

○ 러시아

- (에너지) 루크오일社 및 가즈프롬社,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등 이란 오일-가스 분야 진출 의지 표명('15.5월)
- (금융) 이란과 러시아 통화로 무역 거래 가능한 공동은행(joint bank) 설립 추진하는 내용의 금융 분야 MOU 체결('15.5월)

○ 중국

- (인프라) Sino-Hydro(수력발전), 상하이파워(수력발전), CAMC(철도) 등 이란 발주처와 프로젝트 투자 MOU 체결('15.4월)
- (인프라) 이란 일람(Ilam)주 모르바리드 주지사, 중국 국영기업이 도로, 댐 등 이란 서부 인프라 확충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('15.5월)

○ 인도

- (인프라) 인도 교통해운부 장관 니틴 가드카리, 이란 방문 후 차바하르 항구 개발 투자 MOU 체결('15.5월)

별첨 4 이란 국가 개요

□ 일반사항

국 명	이란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
위 치	중동 페르시아만 동부, 카스피해 남부 (이라크, 터키, 아제르바이잔,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)
면 적	165 만km ² , 한반도 면적의 7.5배
기 후	대륙성 기후(4계절)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,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기후
수 도	테헤란 (인구 830만 명)
인 구	7천9백만명 (2015년 전망)
주요도시	마샤드, 이스파한, 타브리즈, 시라즈
민 족	페르시아 51%, 아제르바이잔 24%, 쿠르드7%, 아랍3% 등
언 어	이란어(Farsi)
종 교	이슬람교 98%(시아파89%,수니파9%), 기타 2%(조로아스터교, 유대교, 기독교 등)
건국(독립)일	1979.2.11일
한-이란 외교관계 수립일	1962.10.23일
정부형태	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
국가원수	○ 최고지도자: 하메네이(Ayatollah Seyyed Ali Khamenei) - 취임일: 1989.6.4.(임기: 종신) ○ 대통령: 하산 로하니(Hassan Rouhani) - 취임일: 2013.8.5.(임기: 4년)

(주 : 2014.12.31일자 기준, 자료원: 이란 통계청, CIA, IMF, 테헤란 무역관)

□ 경제지표

GDP	4,027억 달러 (2014년 기준)
실질경제성장률	2.3% (2015년 전망)
1 인당 GDP	5,165달러 (2014년 기준)
실업률	10.5% (2015년 전망)
물가상승률	15.8% (2015년 전망)
화폐단위	Iranian Rial (IR)
환율	US\$ 1 = 26,940Rial (2015년 전망, 정부환율)
외채	147억 달러 (2014년 기준)
외환보유고	634억 달러 (2014년 기준)
주요자원	석유(매장량 세계 3위), 천연가스(매장량 세계 2위)
산업구조	서비스 46.9%, 석유가스산업 27.9%, 광공업 18.3%, 농업9.3% (2014년 기준)
교역규모	수출: 856억 달러 (2013년 기준) 수입: 839억 달러 (2013년 기준)
교역품	수출: 석유가스, 플라스틱, 농산물 등 수입: 산업기계, 철강, 전기전자제품 등

(주 : 2014.12.31일자 기준, 자료: 이란 중앙은행, EIU, 테헤란 무역관)

□ (시장 특징) 서방 경제제재下의 가변성 높은 시장

- 교역, 프로젝트, 투자진출, 금융거래 등에 제약 다대
- 산업시설, 설비 및 장비, 부품 등 노후화 지속 및 유가하락·원유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로 경기부진 지속
 - * 경제성장률 : 1.7%, 실업률 10.3%(여성(24%)과 청년(20%)), 물가상승율 : 22.0% ('14년)
 - * '14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'11년 수출규모의 42% 수준
 - * 원유 수출 : ('11) 251만 → ('12) 153만(▲40%) → ('13) 100만(▲35%) → ('14) 106만(6%)
- 수입의존형 시장 및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 지속
 - * 국내 수요 물품의 50% 이상을 수입에 의존(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원료 및 자본재, 완제품 수입이 불가피)
 - * 드라마(대장금, 주몽) 한류 영향 지속 및 유럽제품의 대체 상품으로 인식
 - ⇒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 철수 이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지속
- 약 8천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한 중동내 최대 내수시장 기반 보유
 - * PPP(구매력기준) 1인당 GDP \$12,677 수준('14)
-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
 - *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 : ①러시아 ②이란 ③카타르
 - * 이란의 주요 자원 매장량 순위 : 원유-3위, 구리-9위, 철광석-12위, 아연- 17위

□ (경제정책) 산업화 정책 지속 추진으로 제조업기반 형성

- 이란 정부, 경제·사회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노력
 - * 중동최대의 제조업 기반 국가 (연 15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능력 보유)
 - * 국가발전기금(약 600억 달러 추산)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 추진
 - * 2차 산업의 GDP 비중 : 44.3% (*3차 산업 : 44.9%, 1차 산업 : 10.8%)

□ (건설 플랜트) 경제제재 해제시 프로젝트 시장 대폭 확대 전망

- 노후화된 공항, 도로, 철도 등 SOC시설 개발 수요 다대 및 에너지 개발 분야 유망
 - * 이란 정부, 제재 완회시 1,600억 달러 규모의 건설·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계획 중

별첨 5 한-이란 교역동향

- (교역) '12년 對이란제재 강화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'15.1-3월간 한-이란 교역규모는 17.7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% 감소

〈對이란 교역동향〉

(단위 : 억 달러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.1-3월
수출	46.0 (15.2%)	60.7 (32%)	62.6 (3.1%)	44.8 (▲28.4)	41.6 (▲7.1%)	11.9 (47.1%)
수입	69.4 (20.8%)	113.6 (63.7%)	85.4 (▲24.8%)	55.6 (▲34.9%)	45.8 (▲17.7%)	5.84 (▲55.4%)
교역 규모	115.4 (18.5%)	174.3 (51.0%)	148.0 (▲15.1%)	100.5 (▲32.1%)	87.4 (▲13.0%)	17.74 (▲16.19%)

(자료원 : KOTIS)

- (수출)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,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들의 고른 수출 증가세로 '15.1-3월간 對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47.1% 증가한 11.9억 달러 기록

〈對이란 수출 상위 10대 품목〉

(단위 : 백만달러, %, MTI 4단위)

품목명	2014		2015.1-3월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총계	4,162	-7.1	1,191	47.1
합성수지	435	8.9	128	45.0
자동차부품	259	92.8	93	128.8
칼라TV	397	-18.8	74	26.4
승용차	25	-46.3	71	6,789.0
냉장고	264	10.7	58	10.7
열연강판	132	12.7	55	140.1
평판디스플레이	204	-7.5	54	21.9
무선전화기	114	109.1	44	229.1
냉연강판	115	247.5	41	251.3
세탁기	104	2.4	29	-7.0

(자료원 : KOTIS)

- (수입) '15.1-3월간 對이란 수입은 전년대비 55.4% 감소한 5.8억 달러 기록

〈對이란 수입 상위 2대 품목〉

(단위 : 백만달러, %, MTI 4단위)

품목명	2014		2015.1-3월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총계	4,578	-17.7	584	-55.4
원유	4,502	-12.3	520	-59.6
LPG	39	-83.5	59	6,070.6

(자료원 : KOTIS)

[끝]